

# 인구 10만명 회복...체류형 문화관광도시 도약 나선다

## 임택 동구청장 민선 8기 구정 계획

6대 분야 45개 공약사업 추진  
 찾고 싶은 '편시티' 조성 목표  
 인공지능 융합한 신산업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고용 창출도

광주시 동구가 낡고 오래된 구도심 이미지에 서 벗어나 인구 10만명 회복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찾고 싶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동구 구정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변화와 발전'으로 찾고 싶은 동구'를 완성시켜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 가장 재미있는 '편시티

(Fun City)'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6·1지방선거에 재선에 성공한 임택 구청장은 1일 취임과 함께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안심할 수 있는 안전건강도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등 6대 분야 45개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구청장은 "주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만큼 우리 동구를 '광주에서 가장 빛나고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과거 공동화 현상으로 쇠락해가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고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로 발달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임택 동구청장

도시개발·주택재개발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난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인구 10만명으로 늘어 '살고 싶은 동구'의 꿈을 실현했다.

이러한 회복세에 힘입어 민선 7기에만 164건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상 실적과 2,240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동명동, 서남동 인쇄의 거리, 산수동, 계림동, 지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오는 2024년까지 780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중이다.

특히 1인 가구 비율(48.3%)이 가장 높고,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2%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동구는 물리적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복지 강화와 참여·협치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임 구청장은 지난 4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을 들였다면, 앞으로 4년은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동구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미

현했다.

이러한 회복세에 힘입어 민선 7기에만 164건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상 실적과 2,240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동명동, 서남동 인쇄의 거리, 산수동, 계림동, 지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오는 2024년까지 780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중이다.

특히 1인 가구 비율(48.3%)이 가장 높고,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2%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동구는 물리적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복지 강화와 참여·협치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임 구청장은 지난 4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을 들였다면, 앞으로 4년은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동구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미

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대기업 등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특성상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인공지능(AI)이 융합된 신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장로와 금남지하상가를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 상가로 융합해 예술과 문화, 지속가능한 상권 등 3개를 테마로 하는 호남지역 최대 중심 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거 도소매 중심의 골목경제를 넘어 AI를 결합한 신산업 중심의 미래전략사업 육성과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은퇴자·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민찬기 기자



광주시 동구는 최근 2022년 2분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 민선 7기 공약 이행률 98%...신뢰·공감대 향상

### 2022년 2분기 평가회 개최

광주시 동구 민선 7기 공약이행률이 98.8%, 공약완료율은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최근 민선 7기 공약이행사항 최종 점검을 위한 '민선 7기, 2022년 2분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총괄 추진 현황, 주민 의견이 반영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약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최종 마무리 점검을 했다.

동구는 지난 2018년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꾸리고 민선 7기 공약이행 성과 및 과제를 매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4년간 꾸준히 운영해왔다.

또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주민 참여 기회 제공, 주민 대표성 확보 등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공감대를 높였다.

그동안 동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일자리 민생경제 ▲도시환경 ▲마을복지 ▲생활문화예술 ▲자치공동체 등 5대 분야 41개 공약사업을 역점 추진해 왔다.

동구는 6월말 현재 98.8%의 공약이행률과 95%의 공약완료율을 달성한 가운데 41개 공약사업 중 39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2개 사업도 정산 추진 중이다. /민찬기 기자

### 아동친화형 아파트 조성 협약

광주시 동구는 최근 ㈜호반건설 및 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아동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교지구를 시작으로 네 번째 맺는 아동친화형 아파트 협약으로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계림1구역 961세대 호반써밋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협약내용은 ▲아동 안전 차량대기소(키즈 스테이션) ▲안전 보행로 표시 ▲아동형 수납장·코너리스 가구 설치 ▲손 끼임 방지시공 ▲친환경 벽지 인테리어 반영 ▲테마 놀이터 ▲공동 현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찬기 기자

## 플뿌리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조성한다

### 15개 단체·기관·공동체와 맞손

광주시 동구는 최근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지역 15개 단체·기관·공동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 현장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플뿌리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협력망을 구축하고 기초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모델을 도출

한다.

올해로 2년째 사업을 추진하는 동구는 지난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이어 올해는 지역 내 문화예술 현안의 대안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지역자원 연계 ▲교류 방안 모색 ▲지역민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접목 창구 등 동구만의 독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교육 모델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찬기 기자

## 서울국제관광박람회서 '최우수 마케팅상'

### 동명동 커피 증정 방문객 호응

광주시 동구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제37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서울국제관광박람회는 대규모 관광박람회 중 하나다.

이번 박람회에는 40여 개국, 400여 개의 국내·외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매년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발맞춰 라이브커머스, 토크 콘서트, 관광상품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동구는 이 기간 박람회 홍보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동명동 드립커피 시음 체험을 비롯한 포토존 운영, SNS 포토 이벤트, 5·18민주광장에 위치한 빛의 분수대 등 해시태그 이벤트 행사를 펼쳤다.

이중 동명동 카페의 거리 내 커피 전문점에서 제조한 커피를 증정해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동명동 카페의 거리의 커피 맛과 향기에 매료돼 동구 홍보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빛의 분수대 1박 2일 광역 시티투어 ▲추억의 충장축제 ▲동명동 카페거리 ▲3박 4일 동네 한 바퀴 생활 관광 상품 등을 알리고 SNS 해시태그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해 눈길을 모았다. /민찬기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